

# 한미 FTA 타결이 광학 및 전자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한국은 IT분야의 무관세를 시행한 이후에 수출이 오히려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무관세에 의한 개방정책은 업계의 적절하고 지혜로운 대응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로 꼽을 수 있으며, FTA의 타결에 상당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IT관련 산업은 ITA 협정에 따라 무관세화 실시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경쟁력을 갖춰 국내수출 주력제품으로 성장했다.

## 1. 한미 FTA 협상결과와 관세구조

지난 2006년 2월 3일부터 한국과 미국은 FTA 협상개시 선언 이후, 14개월간 협상을 거쳐 2007년 4월 2일 공식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양국은 전자산업을 양허제의 품목 없이 “전체품목 무관세”로 협상 타결했다. 그 중에서 협정 발표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양국의 품목 비중은 수입액 기준으로 미국 95.9%, 한국 96.1%로 한미 상호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에어컨, 냉장고 등 우리의 주요 수출관심 품목이 미국 측의 즉시 관세철폐 품목에 포함되어 매우 고무적인 협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양국은 자국의 전자제품 중에서 경쟁력 확보기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양허유예 기간을 설정해 두었다. 우리나라는 전자의료기기, 전자부품 등 대미 기술력 열위 및 차세대 유망품목 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관세철폐 기간 연장으로 합의했다. 미국은 세탁기, 오븐 등 가전 일부품목에 대해 중·장기 양허유예를 획득했다.

사실 전자제품의 경우는 이미 대부분의 IT제품분야가 무관세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가전분야 등 일부에서 관세가 남아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 전자제품분야가 크게 부각되지 못했던 이유라 할 수 있다.

전자분야는 WTO의 ITA협정(97.7)에 의해 무관세화를 이미 이

루었다. 1997년 7월 한국, 미국, 일본, EU 등 60개국이 참가하

유예기간	한국	미국
3년 이내	진단용 텔레비전 모니터, 초단파 수신기, 영상투사기용 스크린, 온도계, 적산용 계기,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X선관, X선 발생기, X선 및 방사선기기부품, 혈관조영촬영장치, 끝밀도측정기, 감마카메라장치, 선형가속치료장치, 청력검사기구, 인공신장기, 의료용전자기기부품, 뇌파계, 정지화상비디오 카메라, 마그네틱테이프(6.5mm초과), 음성재생용 레코드, 테이프, 디스크, 세탁기(10Kg 이하), 전열용 저항체, 손전등, 천장 벽 부착용 조명기구(형광램프), 방폭형 전기램프 및 조명기구, 비전기식램프 및 조명기구, 소형가정용 전기기기, 정수기 교체용 필터, 속도센서, 회전센서, 알칼리 망간건전지, 퓨어즈, 계전기, 전자관, 전신기록매체(마그네틱 스트라이프), 로드셀	텔레비전카메라 부품품, 인쇄회로조립품(레이더, 무선기기용), TV용 부품품, 디지털식 적산용 계기, LCD TV, PDP TV, TV용 부품(튜너, PCB 등), 천장 벽 부착용 조명기구, 인덕터
5년 이내	환자감시장치, 고주파증폭기, 에어징크 일차전지, 인덕터	평판TV용 부품, 마그네틱테이프, 비행자료기록기, 전자발광램프, 마이크로웨이브 증폭기, 에어징크 일차전지, 열전자관, 복합형 확성기(스피커)
10년 이내	X선사용기기, 심전계, 초음파영상진단기, 자기공명촬영기기, 내시경, 복합형 확성기(스피커)	완전자동세탁기(10Kg 이상), 세탁기용통 및 조립품, 가정용 믹서, 과즙추출기, 가정용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산데리아용 유리제 부품품, 램프, 조명기구용 부품품

표 1. 한미FTA결과의 전자분야 관세유예 현황

품목명	미국 관세율(%)	한국 관세율(%)
컬러TV	3.9 ~ 5	8
세탁기	1 ~ 2.6	8
에어컨	1 ~ 2.2	8
캠코더	2.1	0
MP3P	0	8

표 2. 한미 주요 가전의 관세율

여 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 등 IT산업분야 203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한 정보기술협정(ITA :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을 체결했다.

현재 63개국 가입되어 있으며, 가전제품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관세가 없다. 심지어 ITA 미가입국인 중국과 대만도 ITA 회원국과 같은 수준으로 IT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IT분야의 무관세를 시행한 이후에 수출이 오히려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무관세에 의한 개방정책은 업계의 적절하고 지혜로운 대응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로 꼽을 수 있으며, FTA의 타결에 상당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IT관련 산업은 ITA 협정에 따라 무관세화 실시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경쟁력을 갖춰 국내수출 주력제품으로 성장했다.

한국과 미국은 디지털TV나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에서 미국의 관세율이 평균 2.5%정도이며, 전자 전체를 볼 때 평균 2%정도 관세율이 남아 있고, 한국은 평균 8%정도 남아 있다.

## 2. 한국과 미국의 전자 무역구조

우리나라 전자산업에 있어서 미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전자 수출시장으로서 2006년기준 수출과 수입이 각각 139억 달러, 98억 달러를 수입하여 4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매년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주로 메모리반도체와 휴대폰의 미국시장 감소에 기인한다.

한미간 전자제품은 대부분 비교우위가 명확하여 경쟁관계가 낮은 수준이며, 무역구조도 상호보완적 형태로 나타나 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비메모리 반도체를 공급받아 휴대폰, 디지털 TV 등의 완제품을 생산하여 다시 수출하고,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완제품 및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받는 구조이다.

정밀계측기기분야에 있어서 미국은 생산설비에 필요한 고성능 정밀계측기기를 한국에 공급하고, 한국은 범용 계측기기를 주로 수출하는 구조이다. 또한 한국의 전자산업은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주로 미국의 기초 기술 및 표준을 채택하여 이를 산업화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 3. 국내 기업의 대응 방안

우리기업이 한미FTA의 성과를 최대한 향유하기 위해서는 끊임

	2004	2005	2006
수출 (백만불)	18,054	14,460	13,865
수입 (백만불)	9,234	9,691	9,849
무역수지 (백만불)	8,820	4,769	4,016

표 3. 한·미 전자 교역 현황

자료 : KOT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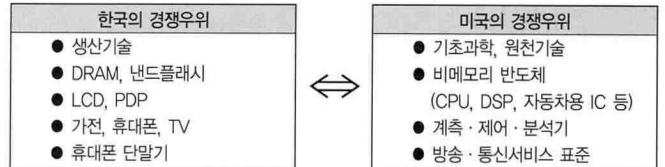


표 4. 한국·미국 전자산업의 보완적 무역 구조

없었던 기술개발 강화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융합 신기술 산업으로의 구조 고도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디지털 신기술 융합관련 상품을 새로운 유망업종으로 개척하는 것이다. 이미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3대 주력품목은 성숙기에 들어갔으며, 핵심·원천기술 부족 및 독자행보식 기술 개발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때마침 기술·산업간 융·복합화가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으로 부상하여, 디지털전자산업 기반의 전통산업과 NT, BT 등 신기술의 선택적 융합을 통하여 새롭게 창출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업계는 노력해야 한다.

또한 우리 기업은 미국의 법제도, 시장동향, 소비 트렌드 등의 정보획득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미국 현지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숙지해야 통상마찰(무역구제) 최소화를 위한 사전 대비가 강화된다. 작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간부들이 미국에 판매하고 있는 D램 가격에 대한 담합 행위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은 예가 있다. 단순한 가격 논의로 하더라도, 미국은 담합행위로 간주하고 미국법 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 On/Off-line 유통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모색해야 한다. 우리 업계는 유통업체 재편 흐름 파악과 해당 매장에 가장 큰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전자제품관련 대형 유통매장(BestBuy, Walmart 등)과 영업·A/S 등의 부문에서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근에는 온라인 매장(인터넷쇼핑몰)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기술과 디자인을 앞세워 시장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